

李濟馬 性情論의 陰陽的 原理  
— 性情氣의 運動原理와 體質發顯 感情分類의 妥當性 —

김진성\*

The Principle of the Theory of the Nature and Emotion by Lee Je-Ma

Kim Jin-sung

Dept.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Sunghnam, Korea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is the constitution medicine and the basis which constitution reveals is the distinction of the nature and emotion. Therefore the theory of the nature and emotion is the foundation which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is coming into being.

The author studied the progress that the distinction of the nature and emotion was formed and analyzed the phenomenon presented by the distinction of it as the principle of the movement of *Yin* and *Yang*.

The results are following;

1. The beginning of the operation of the nature begins from some one part(*cho* ; 焦) among four part. That consists of the first factor of constitution-rev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istinction of the nature, the second factor, that is the distinction of the emotion is determined and the united distinction of the nature and emotion presents the Sasang constitution.
2. The operation of the nature and emotion is the movement of Qi by the property of Yin and Yang and that is the phenomenon presented by the logical and scientific law.
3. The ontology of Lee Je-ma is Qi-monism.
4. Four emotion( Sorrow, Anger, Joy, Pressure) are not partial concept of the emotion but total concept which include all of it.

---

\*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 I. 緒 論

四象醫學은 體質醫學으로서 東武가 提示하는 體質發顯의 根據는 性情의 特徵이다. 그러므로 性情論은 四象醫學 成立의 土臺이다. 또한 四象醫學은 心身醫學으로서 心身의 相關關係를 全面的이고 深層的으로 解明한 最初의 醫學이다.

既存의 醫學史에서 精神現象을 다루는 形而上學과 身體現象을 다루는 形而下學은 뚜렷한 接點을 찾지 못한채 相關關係의 重要性만을 強調하거나 假說的이고 斷片的인 理論의 提示에 그쳐왔다. 따라서 東武가 儒教哲學의 性情論을 觀念的 哲學의 世界에서 科學의 領域인 醫學說의 中心理論으로 使用함으로써 哲學과 醫學을 하나의 領域에서 다룬 것은 醫學史의 新紀元을 이루는 것이자 心身の 存在인 人間을 온전하게 理解할 수 있는 有用한 方法論을 提示한 것이며 現實의으로도 그 有意성을 認定받고 있다.

그러나 性情의 論理體系가 心證이 아니라 科學性을 認定받기 위해서는 첫째, 體質發顯의 根據인 體質別 性情의 特徵이 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對한 合理的 論據가 樹立되어야 하고 둘째, 性情의 陰陽的 氣의 運動의 合理的 原理가 說明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四象의 感情分類의 妥當성이 糾明되어야 한다.

이에 著者는 體質發顯의 根據인 性情의 特徵이 形成되는 過程과 形成된 特徵에 따라 나타나는 現象을 陰陽的 氣의 運動原理로 分析하고 또한 四象의 感情分類의 妥當性 與否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1. 性情論의 陰陽的 原理

#### 1) 體質의 發顯因子

東武는 體質은 臟腑의 大小에 依해 區分되고 臟腑의 大小를 決定하는 것은 性情이라 했다. 즉, 太陽人은 哀性遠散而 怒情促急하므로 肺大肝小하게 되고, 少陽人은 怒性宏抱而 哀情促急하므로 脾大腎小하게 되고, 太陰人은 喜性廣張而 樂情促急하므로 肝大肺小하게 되고, 少陰人은 樂性深確而 喜情促急하므로 腎大脾小하게 된다.<sup>1)</sup>

그렇다면 이러한 性情의 特徵은 왜 나타나는가?

性是 삶의 條件으로서의 環境(天機)을 客觀的으로 觀察하는 것이고, 情은 觀察의 結果에 依해 얻어진 認識을 바탕으로 한 個人的이고 主觀的인 行爲의 過程이나 結果에 對해 느끼는 感情이다. 따라서 性과 情은 時間的 次序를 두고 發顯되는 精神作用이다.

그러므로 體質發顯의 最初因子를 追跡해 들어갈 때 情은 性에 이은 第2의 發顯因子이며 當然히 性은 第1의 發顯因子가 된다.

#### (1) 性의 特徵

##### 가) 性의 特徵의 發顯理由

體質發顯의 第1의 因子인 性의 特徵은 어떻게 發顯되는가?

性이란 精神現象이 나타나는 根據로서 本體에 該當한다. 天命之謂性(中庸)에서 보듯이 性이란 自然으로부터 賦與된 것으로 그 由來를 規定할 수는 있지만 왜 由來되는지는 여기서 論할 바가 아니다.

性이란 精神現象이 發顯되는 最初의 根據로서 作

1) 四端論, 東醫壽世保元, p9

用이 始作되면 同時에 分化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分化를 四象의으로 볼 때 最初의 作用點이 어디인가에 따라 장차 太少陰陽人으로 區分되는 差異가 始作되는 것이다.

만약 作用이 始作되지 않는다면 精神現象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디인가로부터 作用이 始作될 수밖에 없다. 그 始作이 陽中之陽에서 시작된다면 哀性遠散하여 太陽人이 되는 것이고 陽中之陰에서 시작된다면 怒性宏抱하여 少陽人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四焦가 同時에 또는 正中의 中心點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이와같은 물음이 四象醫學에서 意味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東武의 表現을 빌리자면 四個體質이 나타나는 것은 陰陽之變化요 天理之 變化이므로 天稟之已定은 固無可論也<sup>2)</sup>라 하였는 데 이 말은 體質은 先天的인 것이고, 後天的 變化可能性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後天的 變化的 可能性은 없다하더라도 先天的으로는 어떤 陰陽之變化, 어떤 天理之變化에 依해 體質이 그와같이 定해지는지 또는 體質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論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體質의 發顯은 人間이 現在와 같이 存在하기 위한 必要條件이다.

만약 四焦가 同時에 또는 正中의 中心點에서 作用이 始作된다면 그것은 內經의 五態人論中 陰陽和平之人이 될 것이나 現實의으로 이는 成立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완벽한 調化란 理想일 뿐 存在하지 않는다. 生命이든 生命이 아닌 無生物이든 氣의 世界에서는 완벽한 平衡狀態에서는 運動이 일어나지 않으며 動的平衡을 想定한다해도 動的平衡時 運動에 따른 變化는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生成도 일어날 수 없다.

또한 進化論的인 見地에서 볼 때 同一種사이의 偏差가 交叉되는 가운데 보다 높은 適應力을 가진 優性形質이 出現하는 原理에 비추어 볼 때 四象의 偏差는 進化發展과 存在 그 自體를 위한 必要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精神現象의 根據이자 發源地로서 性의 作用의 始作은 四焦中 어느 一焦로부터 始作되고 그것은 體質發顯의 最初의 因子인 性의 特徵을 構成하는 것이고 性의 特徵에 따라 第2의 因子인 情의 特徵이 決定되며 性情의 特徵이 어울려 四象體質이 發顯되는것이다.

#### 나) 體質別性的 強弱의 形成

四象人別 性氣가 가장 강한 것은 太陽人은 上焦(哀性遠散), 少陽人은 中上焦(怒性宏抱), 太陰人은 中下焦(喜性廣張), 少陰人은 下焦(樂性深確)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3焦의 性氣의 強弱은 어떻게 定해지는 것일까?

##### ① 性氣의 強弱의 形成

〈運動法則 1〉 性氣의 形成法則

第1原理, 가장 강한 性氣는 自然法則에 따라 先天的으로 定해진다.

第2原理, 陽은 陽끼리 陰은 陰끼리 強弱의 傾向성을 같이한다. (1位 2位와 3位 4位는 같은 陽이거나 같은 陰이다.)

第3原理, 3位와 4位는 1位 2位와 均衡을 이루는 形態로 定해진다.

##### ② 體質別 性氣의 強弱

上記의 法則에 따라 太陽人의 경우를 例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人의 例)

太陽人은 上焦가 가장 強하다. 2位는 上記法則의

2) 四端論, 東醫壽世保元, p12

第 2 原理에 따라 같은 陽인 中上焦가 2위가 된다. 나머지 3位와 4位는 第 3 原理에 따라 1位 2位와 均衡을 이루는 쪽으로 定해진다. 즉, 3位와 4位 중 보다 강한 3位가 가장 강한 1位와 陰陽의 相對部位에 자리잡고 4位가 2位와 陰陽的 相對部位에 자리잡는다. 그러므로 3位는 1位인 上焦와 相對部位인 下焦에, 4位는 2位인 中上焦와 相對部位인 中下焦에 자리잡는다. 즉, 1位와 3位, 2位와 4位는 對를 이룬다.

이와같은 法則에 따라 四象人別 性氣의 強弱의 順序를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 1〉 四象人別 性氣의 強弱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哀 性	1	2	4	3
怒 性	2	1	3	4
喜 性	4	3	1	2
樂 性	3	4	2	1

(2) 情의 特徵

가) 情의 特徵의 發顯 理由

第 2의 發顯因子인 情의 特徵은 性의 特徵에 의해 決定된다.

이 때 適用되는 原理가 哀怒相成(同陽相成). 喜樂相資(同陰相資)의 原理이다.

(太陽人의 例) 哀性極則 怒情動

哀極不濟則 忿怒激外<sup>3)</sup>

이 原理는 性極失中하면 情生逆動<sup>4)</sup> 하는 데 이 때 陽은 陽끼리 陰은 陰끼리 發顯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原理는 性極失中하면 情生逆動하는 경우 즉, 逆動之性이 逆動之情을 誘發하는 경우

만이 아니라 順動과 逆動을 不問하고 모든 경우의 性發則 情動의 경우에 適用되는 原理이다. 이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運動法則 2〉 性情의 相互運動法則

第 1 原理; 性發則 情動

第 2 原理; 哀怒相成, 喜樂相資(同陽相成, 同陰相資)

이것은 哀性이 發하면 怒情이 動하게 되는 데 哀性이 順動하면 怒情이 順動하고 哀性이 逆動하면 怒情이 逆動하는 法則이다.

따라서 太陽人의 경우 怒情이 逆動하는 特徵은 哀性이 逆動하는 特徵 때문에 나타나는 第 2의 特徵이다. 順動이 順動을 誘發하고 逆動이 逆動을 誘發하는 것은 一般의인 傾向性을 意味한다. 즉, 性의 強弱의 傾向性이 情의 強弱의 傾向性을 決定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一般의인 傾向性이며 鐵則은 아니다. 왜냐하면 人間은 本能的으로 調和와 完全을 指向하므로 修養과 自律의 努力에 依해 逆動을 止揚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修·不修에 따라 變化가 일어나지만 그 傾向性은 恒常 內在한다.

이 法則이 成立하기 위한 陰陽의 運動 法則을 論究해 본다면

나) 同陽相成, 同陰相資의 理由

〈圖表 2〉 太陽人의 例

		性		情	
陽	陽中之陽	哀			
	陽中之陰	怒			
陰	陰中之陽	喜			
	陰中之陰	樂			

3) 四端論, 東醫壽世保元, p12

4) 四象醫學原論 p55

첫째, 性이 情에 영향을 미칠 때는 波動의 原理가 作用한다. 이것은 自然의 運動法則으로서 빛이나 電波의 運動時에도 同一한 樣相을 보인다.

둘째, 反者 道之動의 原理와 符合된다.

셋째, 性情의 相互作用時에는 陽은 陽사이에서만 (陽中之陽↔陽中之陰) 陰은 陰사이에서만 (陰中之陽↔陰中之陰) 適用된다. (理由는 情의 運動法則에서 論함)

그러므로 體質發顯의 第2의 因子인 情의 特徵은 第1의 因子인 性의 特徵에 따라 決定된다.

## 2) 情氣의 運動原理

情氣의 特徵이 臟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運動原理에 依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哀怒喜樂의 氣의 運動形態와 人事에서의 意味를 살펴보고 情氣의 영향에 대한 東醫壽世保元의 關係條文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情氣의 運動形態

〈圖表 3〉 情氣의 運動形態

上 焦	陽中之陽	哀	直升 ↗
中上 焦	陽中之陰	怒	橫升 ↗
中下 焦	陰中之陽	喜	放降 ↘
下 焦	陰中之陰	樂	陷降 ↓

### (2) 情氣와 人事

가) 哀情은 行於事務할 때 哀別人之 欺己也이니 哀情非他 哀也.<sup>5)</sup>

즉, 哀情은 自身의 個人的일을 處理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니 哀情은 다름아닌 슬퍼하는 感情이다.

이 哀情은 단순히 結果에 對해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先行하는 欲求가 있으니 事務를 處理하는 過程에서 希不欺(속지 않기를 바람)하는 것이고 處理의 結果 속임을 當하면(欺) 슬프고, 속임을 當하지 않으면(不欺) 슬프지 않은 것이다.

(哀情)

先行欲求…希不欺

結 果…欺…哀

不欺…不哀

나) 怒情은 行於交遇할 때 怒別人之 侮己也이니 怒情非他 怒也<sup>5)</sup>

즉, 怒情은 넓은 人間社會에서 多樣하게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에 對해 노여워하는 것이니 怒情은 다름아닌 노여워하는 感情이다.

이 怒情 亦是 先行하는 欲求가 있으니 交遇를 맺는 過程에서 希不侮(업신여김을 當하지 않기를 바람)하는 것이고 交遇를 맺은 結果 업신여김을 當하면(侮) 노엽고 업신여김을 當하지 않으면(不侮) 노엽지 않은 것이다.

(怒情)

先行欲求…希不侮

結 果…侮…怒

不侮…不怒

다) 喜情은 行於黨與할 때 喜別人之 助己也이니 喜情非他 喜也<sup>5)</sup>

즉, 喜情은 倫理的으로 맺어져야 할 가까운 人間關係에서 무리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우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니 喜情은 다름아닌 기뻐하는 것이다.

5) 擴充論 p13

喜情의 先行하는 欲求是 黨與關係를 맺는 過程에서 希助(도움받기를 바랍)하는 것이고 黨與를 맺은 結果 도움을 받으면(助) 기쁘고 도움받지 못하면(不助) 기쁘지 않은 것이다.

(喜情)

先行欲求...希助

結果...助...喜

不助...不喜

라) 樂情은 行於居處할 때 樂別人之 保己也나 樂情非他 樂也<sup>5)</sup>

즉, 樂情은 地理的인 與件에 따라 生活의 根據地로서 居處를 安靜시킬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保護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樂情은 다름아닌 즐거워하는 것이다.

樂情의 先行하는 欲求是 居處를 安靜시키는 過程에서 希保(도움받기를 바랍)하는 것이고 그 結果 保護를 받으면(保) 기쁘고 保護받지 못하면(不保) 기쁘지 않은 것이다.

(樂情)

先行欲求...希保

結果...保...樂

不保...不樂

(3) 情氣의 影響

가) 情氣에 따른 身體의 變化

① 太陽人의 例

頻起怒而 頻伏怒則 腰脅頻迫而頻蕩也.

腰脅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脅迫蕩不定則 肝其不傷乎.<sup>6)</sup>

起怒하면...腰脅이 迫하고

伏怒하면...腰脅이 蕩하게된다. 왜 그럴까?

첫째, 怒는 否定的인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가 빠져나간다(損氣)

둘째, 怒가 作用하면 陰陽의 相對部位인 中下焦에서 反作用이 일어난다.

따라서 怒(中上焦)가 作用하면 氣가 빠져나가면서 橫升하고, 中下焦에서 反作用이 일어나 역시 氣가 빠져나가면서 放降하므로 腰脅이 조이게(迫)되는 것이고, 怒情이 가라 앉으면 氣가 빠져나가는 것이 멈추므로 原來의 狀態로 돌아가 腰脅이 풀어지게(蕩)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腰脅이 조였다 풀어졌다하는 것이 一定치 않아 肝을 傷하게 되는 것이다.

② 少陰人의 例

乍發喜而乍收喜則 胸腋乍闊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闊狹不定則 脾其不傷乎<sup>6)</sup>

發喜하면...胸腋이 闊하고

收喜하면...胸腋이 狹하게된다. 그 理由는

첫째, 喜는 肯定的인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가 차 오른다.(得氣)

둘째, 喜가 作用하면 陰陽의 相對部位인 中上焦에서 反作用이 일어난다.

따라서 喜(中下焦)가 作用하면 氣가 차오르면서 放降하고, 中上焦에서 反作用이 일어나 氣가 차오르면서 橫升하므로 胸腋이 넓어지게(闊)되고, 喜情이 가라앉으면 氣가 차 오르는 것이 멈추므로 原來의 狀態로 돌아가 胸腋이 좁아지게(狹)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가슴과 겨드랑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하는 것이 一定치 않으므로 脾가 傷하게 되는 것이다.

6) 四端論 p14

③ 少陽人の例

忽動哀而忽止哀則 脊曲忽屈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則 腎其不傷乎<sup>6)</sup>

動哀하면...脊曲이 屈하고

止哀하면...脊曲이 伸하게 된다. 그 理由는

첫째, 哀는 否定的인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가 빠져나간다. (損氣)

둘째, 哀가 作用하면 陰陽의 相對部位인 下焦에서 反作用이 일어난다.

따라서 哀情(上焦)이 作用하면 氣가 빠져나가면서 直升하고, 下焦에서 反作用이 일어나 氣가 빠져나가면서 陷降하므로 脊曲(영덩이 部位)이 굽어지게 (屈) 되고 哀情이 가라앉으면 氣가 빠져나가는 것이 멈추므로 原來의 狀態로 돌아가 脊曲이 펴지게 (伸)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영덩이가 굽어졌다 펴졌다 하는 것이 一定치 않으므로 腎이 傷하게 되는 것이다.

④ 太陰人の例

屢得樂而屢失樂則 背頤暴揚而暴抑也.

背頤者 肺之所住着處也. 背頤抑揚不定則 肺其不傷乎.<sup>6)</sup>

得樂하면...背頤가 揚하고

失樂하면...背頤가 抑하게 된다. 그 理由는

첫째, 樂은 肯定的인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가 차 오른다. (得氣)

둘째, 樂이 作用하면 陰陽의 相對部位인 上焦에서 反作用이 일어난다.

따라서 樂情(下焦)이 作用하면 氣가 차 오르면서 陷降하고, 上焦에서 反作用이 일어나 氣가 차 오르면서 直升하므로 背頤(목덜미)가 들어 올려지게 (揚) 되고 樂情이 가라앉으면 氣가 차 오르는 것이

멈추므로 原來의 狀態로 돌아가 背頤가 가라앉게 (抑)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목덜미가 들어올려졌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 一定치 않으므로 肺가 傷하게 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같이 情氣의 陰陽의 屬性에 따른 運動法則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運動法則 3〉 情氣의 運動法則

第 1 原理; 作用 反作用의 原理

第 2 原理; 距離比例의 原理

이것은 情氣가 作用하면 陰陽의 相對部位에서 反作用이 일어나는데 이 때 距離比例의 原理가 適用된다는 것이다. 즉, 上焦와 下焦사이 그리고 中上焦와 中下焦사이에서 作用 反作用이 일어난다.

3) 性氣와 情氣의 運動法則의 差異

性氣의 運動에는 性發情動(同陽相成, 同陰相資)의 原理가 適用되는 데 情氣의 運動에는 距離比例의 原理가 適用되는 것은 어떤 理由일까?

〈圖表 4〉 性情의 屬性의 差異

	性	情
發顯 樣象	內在的, 先驗的	外顯的, 經驗的
時間的 差序	先	後
主客의 立場	客觀的 觀察	主觀的 實踐

圖表에서 보듯이

(1) 性氣의 運動特性

첫째, 個人의 삶에서 自身の 目的을 隨行하기 위한 行爲以前에 삶의 條件으로서의 環境을 客觀的인 立場에서 觀察하는 것이므로 그 影響力이 크지 않고 둘째, 性은 情으로의 氣의 變換이 이루어져 氣의 出口가 있으므로 性自體內에서의 作用反作用이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性發則情動 卽, 性에서 情으로의 氣의 變換이 이루어질 때는 同陽相成·同陰相資의 過程으로 氣의 強弱만을 傳한다.

넷째, 性의 作用인 環境觀察의 結果 얻은 情報와 그에 따른 認識이 實踐的인 行爲인 人事에 活用되어 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相成·相資의 原理와 關係없이 같은 焦에서 作用된다.

(2) 情氣의 運動特性

첫째, 自身의 目的을 隨行하기 위한 主觀的이고 實踐的인 行爲의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그 影響力이 強하다.







둘째, 行爲의 最終의 結果에 對한 感情이므로 氣의 出口가 없어 情 自體內에서 作用·反作用이 일어난다.

셋째, 作用·反作用이 일어날 때 距離比例의 原理가 適用된다.

4) 四象人別 四焦의 性情의 強弱

(1) 太陽人

<圖表 5> 太陽人의 性情의 強弱

	性			情		
	偏強	1			2	次中
上焦(哀)	偏強	1			2	次中
中上焦(怒)	次中	2			1	偏強
中下焦(喜)	偏弱	4			4	偏弱
下焦(樂)	3中	3			3	3中

가) 性氣의 強弱이 定해지는 過程과 理由

첫째, 哀性의 偏強은 體質發顯의 最初의 因子이자 生命作用의 最初의 始作點으로서 이는 先天的이고 自然法則에 依한 것이다.

둘째, 陽은 陽끼리 陰은 陰끼리 強弱의 傾向성을 함께 한다. 그러므로 哀性이 偏強하므로 같은 陽인

怒性이 次位의 正中之臟이 된다.

셋째, 陰勢力과 陽勢力 사이에 均衡을 위하여 3位의 正中之臟은 偏強한 上焦와의 均衡을 맞추기 위하여 下焦가 된다.

넷째, 中下焦는 自動的으로 偏弱하게 되며 이는 次位의 正中之臟인 中上焦와의 陰陽의 均衡을 맞추는 結果가 된다.

나) 情氣의 強弱이 定해지는 過程과 理由

첫째, 上焦의 哀性이 偏強하므로 性發情動(同陽相成)의 原理에 따라 中上焦의 怒情이 偏強하게 된다.

둘째, 中上焦의 怒性이 두 번째로 強하므로 性發情動의 原理와 波動의 原理에 따라 上焦의 哀情이 두 번째로 強하게 된다.

셋째, 下焦의 樂性이 세 번째로 強하기 때문에 性發情動의 原理와 波動의 原理에 따라 中下焦의 喜情이 세 번째가 되야 하나 偏強한 中上焦의 怒情의 偏強(怒情促急·怒情逆動)의 作用에 의한 反作用으로 損傷을 입어 偏弱하게 된다.

넷째, 下焦는 自動的으로 세 번째가 된다.

以上の 過程과 理由에 따라 다른 體質의 性情의 強弱은 다음과 같이 定해진다.

(2) 少陽人











<圖表 6> 少陽人의 性情의 強弱

	性			情		
	次中	2			1	偏強
上焦(哀)	次中	2			1	偏強
中上焦(怒)	偏強	1			2	次中
中下焦(喜)	3中	3			3	3中
下焦(樂)	偏弱	4			4	偏弱













(3) 太陰人

〈圖表 7〉 太陰人의 性情의 強弱

	性		情			
	偏弱	4				4
上焦(哀)	偏弱	4			4	偏弱
中上焦(怒)	3中	3			3	3中
中下焦(喜)	偏強	1			2	次中
下焦(樂)	次中	2			1	偏強

(4) 少陰人

〈圖表 8〉 少陰人의 性情의 強弱

	性		情			
	3中	3				3
上焦(哀)	3中	3			3	3中
中上焦(怒)	偏弱	4			4	偏弱
中下焦(喜)	次中	2			1	偏強
下焦(樂)	偏強	1			2	次中

5) 四象人別 性情의 強弱과 臟腑의 大小關係

四象人 別 性情의 強弱을 考察한 結果 臟腑의 大小關係와 一致하는 것은 情의 強弱이 아니라 性의 強弱과 一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圖表 9〉 性情의 強弱과 臟腑의 大小 (太陽人의 例)

4焦	性	情	臟腑	
上焦(哀)	1	2	1	肺
中上焦(怒)	2	1	2	脾
中下焦(喜)	4	4	4	肝
下焦(樂)	3	3	3	腎

위 圖表에 依하면 哀性은 偏強하고 哀情은 次中이며 怒性은 次中이며 怒情은 偏強하다.

그런데 왜 肺가 偏大之臟(1位)이 되고 脾가 次位의 正中之臟(2位)이 될까?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太陽之聽能廣博於天時 故太陽之神充足於頭腦而歸肺者大也.

太陽之脾能勇統於交遇而太陽之肝不能雅立於黨與<sup>7)</sup>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充滿於上焦爲神 而注之頭腦爲脈 積累爲脈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清氣 充滿於上焦爲氣 而注之背脈爲膜 積累爲膜海

肺以練達事務之哀力 吸得脈海之清汁 入于肺以滋肺元

脾以練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而滋脾元<sup>8)</sup>

太陽人은 哀性이 偏強(遠散, 1位)하므로 神이 頭腦에 充足함이 1位가 되고, 哀情은 次中(2位)하므로 脈海의 清汁을 吸得하여 肺의 根源을 滋養함은 2位가 되며 怒性은 次中(2位)하므로 氣가 背脊에 充足함이 2位가 되고, 怒情은 促急(1位)하므로 膜海의 清汁을 吸得하여 脾의 根源을 滋養함이 1位가 되어 肺와 脾 사이에 強弱을 區分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나 怒情의 경우 行於交遇할 때는 順動하여 滋脾元하지만 行於黨與할 때는 逆動하여 滋脾元하지 않고 氣激肝하므로 結局 脾가 肺보다 弱하게 되어

7) 擴充論 pp 14, 15

8) 臟腑論 pp 21, 22

肺가 1位, 脾가 2位가 된다.

## 2. 既存의 性情論과 李濟馬 性情論의 差異點

### 1) 本體論

#### (1) 既存의 本體論

東武는 儒學者로서 儒家哲學에서 本體論이 本格的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宋代 周濂溪의 太極圖說이 發表된 以後로서 太極圖說은 儒家哲學上 最初로 宇宙論과 人性論을 縱적으로 連結한 글이다.<sup>9)</sup>

그 以前에도 本體에 對한 概念은 있었고 이미 漢代에 周易의 陰陽의 待對原理에 五行의 氣의 運行概念이 合하여 太極이 一元氣라는 概念을 갖게 되었으나 當時에는 宇宙論과 人性論이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周濂溪의 太極圖說이 發表되고 程伊川이 太極을 陰陽氣化之所以로써 理라하고 다시 朱子가 이를 이어 받아 性即理라 한데서 本體의 理氣論爭이 觸發되었다. 朱子가 性을 理라 한 것은 人間의 道德의 根據로서의 善의 絶對的 根據를 確立하기 위한 것으로 善의 根據를 理라하고 그 理를 實在하는 것으로 할 때 理는 不變의 것이되나 만약 氣라하면 氣는 끊임없이 變化하는 것으로 絶對性을 賦與하기 어렵기 때문에 理의 實在을 主張한 것이다.

本體란 現象의 根據로서의 實在을 意味하며 그 實在가 氣인가 理인가의 問題이다.

本體論은 宇宙論의 本體論과 人性論의 本體論으로 나누어진다. 宇宙의 本體는 宇宙의 根源의 實在을 말하고 人性의 本體는 人間心性의 根源으로서의 實在을 말한다. 그러나 事實上 宇宙의 本體와 人性의 本體는 別個일 수 없으며 儒敎哲學의 으로는 人

性的 本體의 糾明에 關心이 集中되었던 것이다.

### (2) 李濟馬의 本體論

東武는 韓國哲學上 朱子學이 國內에 流入되고 朝鮮朝末까지 本體에 對한 論爭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自身の 本體의 立場을 既存의 本體論과 比較하여 直接的으로 言及하지 않았다.

그러나 東武의 本體의 立場은 뚜렷하다. 그것은 東醫壽世保元의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全적으로 性을 氣로서 說明하고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本論考의 性論에서 보듯이 再論의 餘地가 없다.

즉 東武의 本體의 立場은 氣一元論이다.

그런데 이는 東醫壽世保元의 結論이고 格致藁에서 東武의 本體의 立場을 誤解할 所地가 있는 文句가 있어 이에 對한 糾明을 通하여 東武의 本體의 立場을 밝혀보고자 한다.

#### 〈引用文〉

- ① 性者理也 情者欲也. 理之未盡於性者謂之才 欲之不合於情者謂之慾<sup>10)</sup>
- ② 性純善也, 聖人與君者小人一同也, 心可以善惡也, 聖人與君者小人萬殊也.
- ③ 性理也, 未來也, 聖人與君者小人一同理於未來也.
- ④ 心欲也見在也, 聖人與君者小人萬殊欲於見在也.<sup>11)</sup>

#### 〈解 釋〉

- ① 性은 理義가 갖추어진 것이고 情은 하고자 하는 것이다. 理義가 性에 온전히 갖추어 發顯

9)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p78

10) 獨行編, 格致藁, p71

11) 反省箴, 格致藁, p35

되지 못하는 것을 才能이라 한다. 하고자 함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慾心이라 한다.

- ② 性은 純善한 것이니 本性이 善한 것은 聖인과 小人이 한 가지로 같다. 心은 善할 수도 惡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善惡은 聖인과 君子와 小人이 萬 가지로 다르다.
- ③ 性의 理義가 具顯되는 것은 未來이니 聖인과 君子와 小人이 未來에는 理義를 한 가지로 한다.
- ④ 心이 하고자 하는 것은 現在이니 聖인과 君子와 小人이 現在에는 하고자 하는 것을 萬가지로 다르게 한다.

引用文의 意味를 論究해 보면

(1)의 性者理也와 (3)의 性理也의 句節은 朱子가 主張한 性卽理의 意味로 誤解할 수 있다. 그러나 (1)의 性者理也는 性卽理(性이 곧 理)의 意味가 아니다.

만약 性이 朱子의 主張과 같은 存在論的 實在로서의 理라면 理가 本性에 未盡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東武의 理는 올바른 理致로서의 理義를 意味한다. (3)의 性理也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性理也 未來也는 心欲也見在也의 句節과 어울려 人間이 追求해야할 理想的 價値로서의 善의 理致가 實現되는 것은 未來라는 뜻으로 東武의 立場에서 性의 理는 善의 根據로서의 實在을 意味하는 理가 아니라 性의 性格을 規定하는 抽象的·概念的 理, 價値規定의 理일 뿐이다.

만약, 이 때의 理가 存在論的 實在로서의 理라면 現在와 未來의 區分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東武의 性의 本體的 立場은 氣이며 또한

東武의 對象觀은 一元論<sup>12)</sup>이므로 東武의 本體論은 氣一元論이다.

(그렇다면 朱子가 人間의 道德的 根據로서의 善의 絶對的 根據를 確立하기 위한 目的에서 理를 存在論的 理라고 主張한 것이라면 東武가 性을 純善하다고 主張하는 根據는 어디에 있을까?)

## 2) 性情論

### (1) 性 論

가) 朱子의 性論

(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sup>13)</sup>

(朱子註)

喜怒哀樂, 情也, 其未發則性也, 無所偏倚故 謂之中, 發而皆中節 情之正也,

無所乖戾故 謂之和, 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 皆有此出 道之體也.

達道者 循性之謂 天下古今之所共有 道之用也.<sup>14)</sup>

(性理大典)

性者心之理也, 情者性之動也. . . 未動爲性 已動爲情. . . 性無不善 心所發爲情或有

不善<sup>15)</sup>

朱子는 喜怒哀樂이 發顯되지 않은 것은 性이며 性은 치우친 바가 없으므로 中이라하고, 喜怒哀樂은 感情인데 喜怒哀樂의 感情이 發하되 節度에 맞는 것은 情의 바름이며 어긋난 바가 없으므로 和라 하였다.

또한 큰 根本이라는 것은 自然으로부터 賦與받은

12) 李濟馬의 宇宙論과 四象의 臟腑配屬의 妥當性 考察, p248

13) 中庸

14) 中庸, 朱子註

15) 性理大全 pp 548, 549

人間的 本性을 말하는 것으로 天下의 모든 理가 모두 이 本性에서 나오며 道가 由來되는 本體라고 하였다.

즉, 朱子의 性은 하늘로부터 賦與받은 것이요 實在로서의 理이자 人間的 道德的 根據이며 치우치는 바가 없으므로 큰 根本으로서의 中이라 하였다.

나) 李濟馬의 性論

① 往必有哀, 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 人性也, 往來臨立 天命也. . . 既有來往立臨之命即 亦自有不來往不立臨之命也, 是故 喜怒哀樂者 來往立臨之 間與人相接之性而有節不節也, 戒愼恐懼者 不來往不立臨之時 自己獨得之性而有中 不中也.

洞知天下人心之善性然後 喜怒哀樂已發而節也. 洞知天下人心之惡性然後 喜怒哀樂未發而中也.<sup>16)</sup>

② 未發而恒戒 此非漸近於中者乎 已發而自反 此非漸近於節者乎<sup>17)</sup>

③ 意 性之主宰也. 意往而求知 得知而反之性也. 故得之者意也, 實求則養性也, 藏之者 性也. 學問之道無他, 求之吾意而已, 思辨之道無他, 藏之吾性而已.<sup>18)</sup>

④ 天生萬民 性以慧覺<sup>19)</sup>

東武의 性에 對한 見害는 獨特하다.

性에는 喜怒哀樂이 已發하는 性도 있고 未發하는 性도 있다. 이 性은 天命에 따라가름되며 天命은 自然에 의해 人間에 賦與된 것으로서 往來臨立이 있는 命과 往來 臨立이 없는 命으로 나뉜다. 命이란 單純한 命命이 아니고 人間의 삶 또는 行爲를

意味한다. 往來臨立이란 他人과의 關係에서의 行의 모습이고 이 때의 性은 與人 相接之性이자 喜怒哀樂이 發顯되는 性이고 往來臨立이 없을 때는 他人과의 接觸이 없이 홀로 있을 때로 이 때의 性은 自己獨得之性이자 喜怒哀樂의 發顯이 없는 性이다. 이들 性은 朱子의 境遇와 같이 무조건 中한 것이 아니고 節·不節, 中·不中이 있다. 未發之性과 已發之性이 中·節하는 方法으로는 人間의 善性을 知한 뒤에 已發之性이 節하고 人間의 惡性을 知한 뒤에 未發之性이 中한다하였다.

喜怒哀樂의 性이란 感情이 아니고 삶의 環境을 觀察하는 것인데 풀어보면 人間의 本 性이 善하다는 것을 알고나서 世上을 살펴보되 自身이 善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늘 들여다보면 그 살피는 것(喜怒哀樂已發之性)이 節度에 맞게 되고, 人間의 惡性을 알고나서 홀로 조용히 自己自身の 內面을 살피되 恒常 慾心の 發動을 警戒하면 그 살피는 것(喜怒哀樂未發之性)이 치우침이 없게 된다.

또한 性은 知慧롭게 깨우칠 수 있는 能力을 稟賦 받았으며 이러한 性을 主宰하는것은 意로서 意의 主宰에 依해 觀察하고 觀察의 結果 얻은 認識은 다시 性에 간직된다.

이러한 性에 對한 東武의 見解는 朱子가 性을 理라하고 未動하는 것이라 한 것과는 전혀 다르며 以前의 어떤 見解와도 比較할 수 없으며 精神의 本領을 가장 精密하고 正確하게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性卽理說 批判

程伊川이 太極을 陰陽氣化之所以로서 理라하고 朱子가 이를 이어받아 性卽理라한것은 本體의 意味

16) 反省箴 p32

17) 四端論 p13

18) 儒略編, 格致彙, p17

19) 性命論 p5

로서 人間心性의 根源의 實在가 理라는 뜻이며 朱子は 이 理를 性善의 根據로 提示하였다.

이러한 主張에 對한 論議의 核心은 다음 세가지이다.

첫째, 太極은 陰陽氣化之所以일까?

둘째, 性이 곧 理일까?

셋째, 善의 根據는 理일까?

첫 번째 論議의 答은 太極은 陰陽氣化之所以가 아니다이다.

太極은 現象의 根源이자 最初로서 想定된 것이다. 太極이 一動하면 陽이 되고 一靜하면 陰이 되는 것으로 太極은 陰陽의 以前段階이자 陰陽이 그로부터 생겨나는 根源이지 所以(까닭, 理由)가 아니다. 또 太極을 理라하면 太極生兩儀에 結付지어 볼 때 陰陽은 氣이므로 理生氣한다는 것인데 理에서 氣가 化生되어 나올 수가 없다. 본래 太極이란 用語는 對象 그 自體를 일컫는 것이자 對象의 一元的 屬性을 아울러 內包하는 用語이다. 여기서 對象이란 實體를 일컫는 것으로 어떤 境遇에도 實體란 氣를 意味하며 理일 수는 없다.

또한 太極은 理이고 陰陽을 氣의 出發로 본다면 太極은 現象의 最初段階가 될 수 없으므로 本體의 이름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論議의 答은 性은 理가 아니다이다.

性은 마음의 바탕이자 人性的 本體(太極)를 指稱하는 것인데 精神現象은 氣이며 現象이 氣라면 現象의 根源의 實在인 本體도 氣일 수밖에 없다. 現象과 本體의 差異는 分化和 未分化的 差異일 뿐이며 實質에는 變化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 論議의 答은 善의 根據는 理가 아니다이다.

善이란 惡과 相對되는 概念으로 相對概念에 絶對

根據란 存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善의 絶對根據를 想定한 것 자체가 잘못된 意圖이고, 또한 善과 惡은 價値概念이며 價値란 嚴密하게 말하면 人間の 主觀에 依해 決定되는 것이고 個人的 主觀이 社會的 合意를 거쳐 共感帶가 形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主觀的 價値이자 相對概念에 絶對根據는 있을 수 없다.

또한 絶對與否를 떠나 善의 根據가 理라면 惡의 根據도 理일 수밖에 없으므로 善의 根據를 理라고 한 意味가 없다.

#### 라) 李濟馬의 性善論

朱子が 性을 理라한 것은 善의 絶對性을 確立하기 위한 目的이었는데 東武는 性을 氣라함으로써 이와같은 主張에 正面으로 背馳되면서도 性이 善하다는 데에는 同調하였다.

그러면 東武가 性을 善하다고 主張하는 根據는 어디에 있고 또 그 根據는 妥當한 것인가? 人間の 本性이 善한가 惡한가 또한 그 根據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기 前에 善과 惡이 主觀的 價値이자 相對概念임에 비추어 이들을 區分하는 基準이 먼저 設定되어야 한다.

#### ① 東武의 善惡의 基準과 根據

- ㉠ 一同者善也, 一同故易知也,
- ㉡ 萬殊者惡也, 萬殊故難知也<sup>20)</sup>

〈圖表 10〉 善惡의 基準

善	一同	易知
惡	萬殊	難知

이러한 區分은 善惡을 區分하는 基準이며 이 基準을 따르자면 性은 一同하며 易知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根據는 直接 말한 바 없다

20) 反省箴 p35

그렇다면 東武의 性이 善하다는 主張은 妥當한 것인가?

② 性善論의 妥當性 論究

按컨대 現實적으로 人間은 善과 惡의 兩面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人間의 本性은 善할까? 惡할까? 아니면 善과 惡 兩面을 다 가지고 있을까?

善이란 한마디로 定意하자면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惡이란 한마디로 定意하자면 혼자만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人間만이 아니라 모든 生命은 태어날 때부터 잘 살기를 바라는 先天的 欲求가 있다. 이 時期에는 함께(共同)라든가 혼자(獨)라는 意識이 없지만 잘못되기를 바라는 境遇는 없으므로 이를 善의 端初라할 수 있다. 이것이 意識의 成熟過程에서 나 이외의 存在를 認識하게 되고 共同善을 追求하게 되면 이를 善이라 하고 獨善을 追求하게 되면 이를 惡이라 하게 된다.

그러므로 善의 端初는 先天的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眞正한 意味의 善과 惡의 區分은 後天的으로 나누어지는 成熟과 未熟의 差異일 뿐이다.

要約하면 善이란 先天的으로 그 端初를 가지고 태어나서 精神의 成熟에 따라 後天的으로 圓滿하게 具顯되는 것이므로 本質의인 것이고, 惡이란 先天的인 善의 端初를 精神的인 未熟 때문에 具顯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非本質의인 것이다.

以上の 論理에 따라 東武가 性은 純善하다고 主

〈圖表 11〉 善惡의 屬性

先天	善의 端初					本質的
後天	善	共利, 利他	大我	成熟	共同善	
	惡	利己	小我	未熟	獨善	非本質的

張하였으되 그 根據에 對해서는 말한바 없지만 性이 純善하다는 主張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情 論

가) 既存의 感情의 分類<sup>21)</sup>

禮記「禮運編」…喜怒哀懼愛惡欲의 七情

佛敎「釋氏要覽」…喜怒哀懼愛憎欲의 七情

性理學…喜怒哀樂愛惡欲의 七情

內經「本神編」…怒喜思憂恐의 五情(志)

張·馬合註…怒喜思憂悲恐驚의 七情

老子…喜怒哀悲好憎欲의 七情

나) 李濟馬의 感情分類과 分類의 妥當性

① 李濟馬의 感情分流

東武는 人間의 感情을 喜怒哀樂의 四情으로 分類하였다.

이 四情이 感情의 一部分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四象醫學의 情論은 不完全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 四情이 모든 感情을 包括하는 것이라면 感情을 表現하는 다른 用語들은 어디에 所屬되는 것일까?

結論을 말하면 喜怒哀樂의 四情은 感情의 一部概念이 아니라 모든 感情을 包括하는 것이다. 이를 東武가 儒學者였으므로 우선 性理學의 七情을 가지고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以上の 圖表에서 보듯이 性理學의 七情은 同一한 次元의 感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圖表 12〉 東武의 感情의 分類體系 1

太 極	陰 陽	四 象
欲	惡	哀
		怒
	愛	喜
		樂

21) 情緒分類에 對한 東西比較 考察 p36

위 圖表를 좀 더 仔細히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 13〉 東武의 感情의 分類體系Ⅱ

太極	陰陽	四象		八卦		
		先行欲求	感情	結果	感情	氣의變化
欲(希善)	惡(惡惡)	希不欺	哀	欺	哀	損氣
				不欺	不哀	得氣
		希不侮	怒	侮	怒	損氣
				不侮	不怒	得氣
	愛(好善)	希助	喜	助	喜	得氣
				不助	不喜	損氣
		希保	樂	保	樂	得氣
				不保	不樂	損氣

性理學의 七情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欲은 生命力이다. 生命을 維持하고자 하는 즉, 잘 살고자 하는 欲求다.

이것은 가장 根源의인 것으로 여기에서 人間의 모든 行動樣相과 感情이 分化되어 나온다.

둘째, 惡과 愛는 欲의 實現過程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心的 狀態이다.

惡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일이) 잘못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니 곧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愛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일이) 잘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니 곧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셋째, 哀怒喜樂은 惡과 愛의 心的 狀態에서 행해진 行爲의 結果에 따라 나타나는 네 가지 感情이다.

이 중에서 哀와 怒는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惡의 心的 狀態에서 由來되는 것으로 行爲와 行爲의 結果以前에 惡로부터 事務를 통하여 속지않기를 바라고(希不欺), 交遇를 통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希不侮) 先行欲求가 있게 되고 行爲의 結果가 先行欲求의 實現與否에 따라 哀·不哀, 怒·不怒의 感情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喜와 樂은 잘되기를 바라는 愛의 心的 狀態에서

由來되는 것으로 行爲와 行爲의 結果以前에 愛로부터 薰與를 통하여 도움받기를 바라고(希助), 居處를 통하여 保護받기를 바라는(希保) 先行欲求가 있게 되고 行爲의 結果가 先行欲求의 實現 與否에 따라 喜·不喜, 樂·不樂의 感情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要約하면 欲이란 모든 感情이 由來되는 根源이지만 感情은 아니며 惡과 愛는 感情으로 分類되지만 喜怒哀樂에 앞선 次元의 感情이다.

그러므로 愛惡欲과 喜怒哀樂을 同一한 次元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② 李濟馬의 感情分類의 妥當性 與否와 意味

앞에서 性理學의 七情을 四象의 立場에서 檢討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들외의 感情의 表現들 卽 〈懼 憂 憎 好 思 驚 恐 悲〉의 感情들은 어떻게 分類되며 그러한 分類는 妥當한 것인가?

이 물음에 答하기 위하여는 喜怒哀樂의 氣의 屬性과 意味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圖表 14〉 四情의 氣의 屬性과 意味

四情	陰陽의屬性	運動形態	意味
哀	陽中之陽	直升	抵抗없이 빠져나가는 氣運
怒	陽中之陰	橫升	反撥하면서 빠져나가는 氣運
喜	陰中之陽	放降	받아들이는 氣運
樂	陰中之陰	陷降	凝縮시키는 氣運

感情이란 行爲의 過程이나 結果에 따라 나타나는 心的 狀態로서 感情의 發出과 함께 人體內에는 氣의 變化가 생기는 데 肯定的인 結果의 境遇 氣가 차오르게 되고(喜·樂), 否定的인 結果의 境遇 氣가 빠져나가게 된다.(哀·怒)

哀의 경우는 氣가 抵抗없이 빠져나가며 怒의 경우는 氣가 反撥하면서 빠져나간다. 喜의 境遇는 氣를 받아들이며 樂의 境遇는 받아들인 氣를 凝縮시킨다.

性理學의 七情以外的 表現은 <懼·憂·憎·好·思·恐·驚·悲> 이며 이 중에서 思는 感情이 아니며 憎은 惡와 같은 意味이고 好는 愛와 같은 意味로 喜怒哀樂에 앞선 次元의 感情이다. 憂·悲·懼·恐·驚은 모두 否定的인 結果에 따른 感情이며 또한 抵抗없이 빠져나가는 境遇이다.

그러므로 서로간에 偏差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陽中之陽에 屬하며 哀의 部類에 所屬되는 感情들이다.

이와같은 方法論으로 여기서 다루지 않은 어떤 感情의 表現도 陰陽의 屬性和 意味에 따라 喜怒哀樂의 四情으로 分類되므로 東武의 四象의 感情分類는 妥當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分析에 따라 東武의 四情은 感情의 一部概念이 아니라 모든 感情을 包括하는 全體概念임을 알 수 있다.

### Ⅲ. 結 論

四象醫學의 中心理論인 性情論의 合理性和 科學性을 糾明하기 위하여 體質發顯의 根據인 性情의 特徵이 形成되는 過程과 形成된 特徵에 따라 나타나는 現象을 陰陽의 氣의 運動側面에서 分析하고 또한 四象의 感情分類의 妥當性 與否를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性의 作用의 始作은 四焦中 어느 一焦로부터 始作되고 그것은 體質發顯의 最初의 因子를 構成하고, 性의 特徵에 따라 第 2의 因子인 情의 特徵이 決定되며 性情의 特徵이 어울려 四象體質이 發顯된다.
2. 性情의 作用은 陰陽의 屬성에 따른 氣의 運動이며 이는 合理的이고 科學的 法則에 따라 나타나는 現象이다.

性情의 運動에는 3가지 法則이 作用한다.

첫째, 性氣의 強弱의 形成法則.

둘째, 性情의 相互運動 法則.

셋째, 情氣의 運動法則.

3. 東武의 本體觀은 氣一元論이다.

4. 喜怒哀樂의 四情은 感情의 一部概念이 아니라 모든 感情을 包括하는 全體概念이다.

要約하면 李濟馬의 性情論은 不確實한 觀念의 敘述이 아니라 陰陽氣의 運動法則에 따른 確固한 根據를 가진 것으로 現象은 있되 그 實體를 把握할 수 없었던 形而上學의 精神領域을 自然現象이자 合理的 氣의 運動原理로 分析함으로써 形而上學과 形而下學의 境界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領域으로 統合했을 뿐만 아니라 精神現象의 研究를 根據를 提示할 수 없는 不確實한 觀念과 思惟 또는 直觀에 依存하던 段階에서 氣의 陰陽의 屬성에 따른 合理的 自然現象임을 밝혀 科學的 研究領域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金鎮成, 李濟馬의 宇宙論과 四象의 臟腑配屬의 妥當性考察, 四象醫學會誌 9卷1號, 1997.
2. 金忠烈, 宋代 太極論의 諸問題,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延世大出版部, 1984.
3.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社, 1982
4. 李濟馬, 格致藁, 韓國弘方
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出版社, 1979
6. 李忠烈, 情緒分類에 對한 東西比較 考察, 慶喜大學校, 1988
7. 性理大全, 保景文化社
8. 中庸